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 编
서울(SEOUL)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监修

韩国语3

编著者
李先汉 金京善 王 丹
金正祐(韩国)



民族出版社

[주] 한국교육미디어 후원
[株] 韩国教育媒体 资助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 编
서울(SEOUL)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 监修

韩国语3

编著者

李先汉 金京善 王 丹
金正祐(韩国)

民族出版社

责任编辑:崔红梅
责任校对:孙瑛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 3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编. —北京:
民族出版社, 2003.1

ISBN 7-105-05372-0

I . 韩… II . 北… III . 朝鲜语—教材 IV .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3)第 000506 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 14 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3 年 2 月第 1 版 2003 年 2 月北京第 1 次印刷

开本: 787 毫米×1092 毫米 1/16 印张: 15.125 字数: 377 千字
印数: 0 001—3 000 册 定价: 30.00 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前　　言

在中国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与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诸位同仁的共同努力下，《韩国语》终于得以付梓。

本书是为大专院校韩国语专业的学生编写的，也可供各类韩国语学习班及个人自学选用。

全书共分四册，每册学习一学期，供一、二年级使用。

本书从韩国语字母发音讲起。根据韩国语发音的规律与特点，结合初学者学习韩国语时的难点，做了较为详细的介绍，并将其与汉语发音做了对比，以使初学者准确地掌握韩国语的发音要领。

每课均包括课文、生词、语法与惯用型及练习等内容。

课文分为情景对话和短文两部分，兼顾了口语和书面语两种形式，不仅可以提高初学者的口语水平，还能增强书面表达能力。另外，编写课文时，没有过多地拘泥于语法的难易次序，尽量做到课文内容自然、生动，以使初学者能够学到地道的韩国语。

生词部分收录了课文中出现的生词和语法、练习中出现的生词，并逐一注明了词性。释义只限于该课出现的或一般常用词义。第二册开始以词汇活用的形式，对部分重要的单词做了详细的解释，并加了较丰富的例句。

语法与惯用型部分完全以韩国现行语法规范为标准，因此，在语法体系及语法术语的使用上与以往的教材有较大的不同。语法与惯用型解释力求准确、详尽，并尽可能地与汉语做了比较，有利于初学者正确理解语法意义。

此外，本书还安排了形式多样的练习，内容具有补充和启发性质，可在课堂授课时间内完成，也可选做课外作业。

本书还在最后的附录部分安排了课文译文、语法索引及词汇索引等内容，便于对照与查找。

本书由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组织编写，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

研究所监修。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选派金正祐先生参加教材的编写工作。在编写本书的过程中，得到了〔株〕韩国教育媒体的鼎力资助。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的金光海教授、尹汝卓教授为促成此次合作起了举足轻重的作用，并为本书的编写和出版做了不懈的努力。韩国国立汉城大学校的沈在箕教授、朴甲洙教授、李相溯教授等也在百忙之中积极关心，支持本书的编写工作。韩国国立国语研究院和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的部分研究生为本书的校阅付出了辛勤的劳动。在此，谨向〔株〕韩国教育媒体的崔大焕会长及以上诸位韩国学者和研究生致以衷心的感谢。

此外，洛阳解放军外国语学院的张光军教授、对外经济贸易大学的金秉运教授、北京外国语学院的苗春梅教授为本书的编写提出了许多宝贵的意见。民族出版社朝鲜文编辑室的编校人员为本书的编辑出版付出了艰辛的劳动。在此，谨向他们致以由衷的谢意。

由于我们水平有限，加之时间仓促，书中的缺点与不足在所难免，恳请诸位读者予以批评指正。

中国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 所长 李先汉

韩国国立汉城大学校国语教育研究所 所长 金大幸

2001年6月

目 录

第1课 한국의 아름다움	5
第2课 영화 이야기	17
第3课 경제 활동	28
第4课 광고	40
第5课 오빠 부대	51
第6课 단군 이야기	64
第7课 돌리와 영통이	76
第8课 단풍	86
第9课 가을걷이와 축제	97
第10课 환경과 인간	110
第11课 한얼이의 중국 여행	124
第12课 노래와 시	138
第13课 속담의 지혜	149
第14课 선물	161
第15课 수필	171

附 录

课文译文	186
语法索引	210
词汇索引	213

第 1 课

한국의 아름다움

课文

(1) 유민 씨와 최지애 씨는 방학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유민: 지애야, 방학 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지애: 응, 한국에 갔다 왔어. 마침 좋은 전시회가 있어서, 전시회가 열리는 박물관에 여러 번 갔었어. 너도 봉사 활동 잘했어?

유민: 응,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어. 그런데 네가 간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였어?

지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 미술 5천년전>이라는 전시회가 열렸어. 한국의 중요한 미술품들은 거의 다 볼 수 있었어. 하루 종일 다녀도 다 볼 수가 없어서, 사흘 연속으로 박물관에 갔었지.

유민: 나는 한국 미술 작품을 직접 본 적은 없어. 책으로는 조금 봤지만.

지애: 나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봤어. 꼼꼼히 메모도 하고.

유민: 무척 좋았었나 보다.

지애: 응, 특히 소박하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한국 예술의 특징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 내일 내가 전시회에서 사온 엽서를 가져올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봐.

(2) 유민 씨와 최지애 씨는 엽서를 보며 한국 예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민: 이 도자기는 정말 좋아 보인다. 예전에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어.

지애: 그래, 예전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인데, 특히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대.

유민: 이런 아름다움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애: 글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함초롬하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유민: 함초롬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애: 원래의 뜻은 물기에 젖어 있는 모양이 차분하고 아름다워 보일 때 쓰는 말이야. 이

청자의 푸른 빛깔은 맑고 깊은 물을 떠올리게 하잖아. 이런 것에서 곱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걸 함초롬하다고 해.

유민: ‘함초롬하다’는 말은 말소리도 예쁜 것 같은걸.

지애: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3)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좋아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공예품을 만들 때에도 화려한 색깔보다는 은은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한국의 예술품들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순박한 심성을 가진 한민족의 모습이 배어 있습니다.

서양의 그림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그림에서는 ‘담백함’이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백함’이란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며, 또 맛이나 빛이 깨끗하고 산뜻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원색의 강렬함을 피하고, 수묵의 옅은 중간색을 선호합니다. 현란하거나 요란하지 않은 색깔은 경망스럽거나 천박한 삶을 경계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져서 맑은 샘물 같은 순수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예술은 중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묵화나 도자기 등은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독자적인 요소를 새롭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썼던 백자를 보면 흰옷을 즐겨 입던 전통과 너그러운 태도를 승상했던 한민족의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아담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했던 한국 사람들의 성격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불교 문화에서도 한국 특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는 한국의 전통 신앙과 결합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의 불상을 보면 은근한 미소와 여성적인 모습이 다른 나라의 불상에 비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가까운 느낌을 주는 이 불상의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예술이 그리하듯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에는 한민족의 생각과 심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 한국의 전통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课文生词

▶ 词汇活用 ◀

1. 마침(副词)

相当于汉语的“恰恰”、“刚好”、“正好”、“适值”等。

- 우리들도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났다. 같이 가자.
我们也正要去吃饭呢，刚好碰上了，一起去吧。
- 문 밖에 나가니 마침 빈 차가 있었다.
到门外一看，正好有空车。
- 집에 들어오니 마침 뉴스가 시작됐다.
到家时正好新闻开始了。
- 마침 할인판매 기간이라서 백화점에 사람이 무척 많았다.
正好是减价甩卖期间，商店里人非常多。

2. 함초름하다(形容词)

形容浸润在水气里，润泽、清澈、仪态美好的样子，相当于汉语的“盈盈”、“润泽”等。

例

- 함초름히 이슬을 머금은 꽃이 아름답다.
凝着盈盈露珠的花朵非常美丽。
- 그녀의 눈에는 별빛 같은 아름다움이 함초름히 서려 있었다.
她的眼波盈盈，有一种像星光一样的美。
- 고려 청자의 푸른색은 하늘빛이 함초름히 물들어 있는 듯하다.
高丽青瓷的蓝色中似乎融入了天空的蓝色。

3. 아담하다(形容词)

表示“雅致”、“雅净”、“清新”、“娴静”、“娴雅”等意思。

例

-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真想在有雅致庭院的房子里生活。
- 내 여자 친구는 몸이 아담하고, 무척 귀엽게 생겼다.
我的女朋友长得很雅净，非常可爱。
- 크고 넓은 집도 좋지만 이렇게 아담한 집이 나는 더 좋다.
虽然又大又宽敞的房子很不错，但我更喜欢这种雅致的房子。
- 비록 아담한 가게지만 우리 가족의 꿈이 있는 곳이다.
这雅净的店虽然很小，但却寄托了我们全家人的梦想。

4. 은은하다(形容词)

(1) 表示“隐隐”、“隐约”、“柔和”等意思。

例

- 그 사람은 은은한 불빛을 좋아한다.
那个人喜欢柔和的灯光。

- 그녀의 사무실에는 언제나 은은한 향기가 있다.
她的办公室里总是有一种淡淡的香气。

(2) 指从远处传来的声音不很清楚、不很分明。

- 例**
-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어 보아라.
你听听隐约传来的钟声。
 -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곳에 오니, 기분이 차분해진다.
来到钢琴声忽然可闻的地方，心情渐渐平静起来。

5. 은근하다(形容词)

(1) 指某种感觉淡雅、素雅、朦胧，也用来指人的举止谦虚而郑重。

- 例**
- 한국 그림에는 여백과 여운이 있어서 은근한 맛이 느껴진다.
韩国画有余白和余韵，具有若有若无的淡雅之美。
 - 상냥한 주인의 반가운 인사가 은근했다.
和蔼主人的问候热情而稳重。
 - 이 술은 그리 독하지 않은 술이지만, 조금만 마셔도 은근히 취하게 된다.
这种酒虽然不太烈，但稍微喝一点就能使人有些朦胧的醉意。

(2) 指内心的感情非常深挚、深沉。

- 例**
- 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서 은근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他虽然说得很谦虚，但从他的话中可以感受到一种深深的自信。
 - 자기 자랑을 계속 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알밉다.
看到总是自夸的人，莫名其妙地有些厌烦。

语法与惯用型

1. 惯用型 -나 보다

表示推测，相当于汉语的“好像……”、“似乎……”等。这一惯用型与前面所学的-ㄴ가 보다/-는가 보다/-은가 보다相似。

- 例**
- 무척 좋았었나 보다.
一定非常好吧。

- 밖에 비가 오나 봐요.
外面好像下雨了。
- 아마도 어떤 재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그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可能是某个有才气的人编的那些话吧。
- 어린 마음에 너무나 충격이 심해서 그랬나 보지.
肯定是幼小的心灵受到了很大的打击才那样的。

2. 终结语尾 -ㄴ 걸(요) / -는걸(요) / -은걸(요) / -던걸(요)

表示不太经意地提出自己的想法或出乎意料地初次知道某个事实，带有感叹的语气。

- ‘함초롬하다’는 말은 말소리도 예쁜 것 같은 걸.
“함초롬하다”这个词的发音也很美啊。
- 어떡하니? 네 팔자가 좋지 않은 걸.
有什么法子啊？只怪你的命不好。
- 아침에 퇴원했어요. 이제 팬찮은 걸요.
早晨出院了，现在还不错。
- 녀석, 생긴 것보나는 꽤 힘이 센 걸.
小家伙，和个子相比劲儿可够大的。

3. 补助词 -란/-이란

指明所判断的对象或特别加以说明的对象，也常在下定义时使用，相当于汉语的“所谓……”。通常以“-란 -는 것이다 / -이란 -는 것이다”等形式出现。

- ‘담백함’이란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所谓的淡泊，是指一种没有贪欲、心地纯洁的状态。
- 사회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자신들이 정한 국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를 받는 곳이다.
所谓社会，是指人们聚在一起生活，同时被强制要求必须按自身所制定的国法行动的地方。
- 참다운 친구란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所谓真正的朋友，是指不论困难有多大，都能一起承担的人。

4. 惯用型 -ㄴ 것보다(는) / -는 것보다(는) / -은 것보다(는) / -던 것보다(는)

用于句节之后，表示比较，相当于汉语的“比……”。有-는时表示强调。

- 例**
-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아담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했던 한국 사람들의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能感受到韩国人的与宏大和华丽相比更喜欢雅致和朴素的性格特征。
 -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与其独自一人烦恼，不如和父母商量之后再决定。
 - 갈중이 날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보다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清凉的水比冰淇淋更能解渴。

练习

1. 根据课文内容回答下列问题。

- (1) 지애 씨는 박물관에 왜 여러 번 갔습니까?
- (2) 한국 예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3) 본문에서 ‘함초롬하다’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 (4) 본문에서 ‘담백하다’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 (5) 한국 사람들의 미의식에 대해 말해 보시오.
- (6) 한국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왔습니까?

2. 仿照例句改写下列句子。

보기 오늘은 아무도 못 만난 모양이다.

- 오늘은 아무도 못 만났나 보다.
- 오늘은 아무도 못 만났는가 보다.
- 오늘은 아무도 못 만난 것 같다.

(1) 이 집에는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
→
→

(2)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안된 모양이다.

-
→
→

(3) 그는 이번 일로 되게 혼이 난 모양이다.

-
→
→

(4) 그는 요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
→
→

(5) 이렇게 멋있게 만든 걸 보면 컴퓨터를 잘하는 모양이다.

-
→
→

(6) 그림에서 담백하고 은은한 맛이 풍기는 걸 보니 한국 사람이 그린 모양이다.

-
→
→

3. 仿照例句改写下列句子。

보기 네가 안 간다고 하니까 지애도 안 간다고 했다.

→ 네가 안 간다고 하니까 지애도 안 간다고 하던걸.

(1) 이 꽃은 합초롬한 것이 참 예쁘다.

-

(2) 이 그림은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좋다.

→

(3) 양비는 활발하고 지애는 꼼꼼한 성격인데도 둘이는 잘 어울려 다녔다.

→

(4) 한국 사람들은 요란하거나 현란한 색깔보다는 은은한 색깔을 선호한다.

→

(5)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한다.

→

(6) 아까 급히 어디로 가는 것을 보았다.

→

4. 根据所给的内容完成下列句子。

(1) 글을 다 쓰고 보니

(2) 아침에 조깅을 마치고 보니

(3) 핫김에 말을 아무렇게나 해 놓고 보니

(4) 이번 행사를 끝내고 보니

(5) 말없이 혼자 떠나오고 보니

(6) 전화를 받고 보니

5. 根据所给的内容完成下列句子。

(1) 집에서 할 일 없이 노는 것보다는

(2)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3) 말로 하는 것보다는

(4) 아이에게 꾸중을 하는 것보다는

(5)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6) 양비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6. 在括号内填写适当的助词。

1

내() 다니는 대학() 베이징에서도 캠퍼스() 아름답기() 이름난
베이징 대학이다. 봄() 시작하여 가을() 캠퍼스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다. 겨울() 눈이 오면 교정은 하얀 색() 소복 단장을 한다.

2

오늘 선생님() 글() 한 편 지어 오라는 과제() 내 주셨다. 나()
우리 어머니() 대해 쓸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 어머니의 사랑
보다 더 위대한 사랑() 보여준 사람()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7. 用下面的词、惯用型及语尾造句。

- 은은하다
- 은근하다
- 아담하다
- 마침
- 함초롬하다
- -나 보다
- -은걸요
- -고 보니
- -란/-이란
- -던 것보다

8. 用下面所给的词填空。

보기 은은하다, 마침, 은근하다, 아담하다, 요란하다, 천박하다

(1) 잘됐습니다. 제가 () 집을 팔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쁘고 () 집입니다.